

# 전문도서관 현장에서 본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문제점

Problems of the current LIS curriculum  
from the viewpoints of Special Librarians

윤유라,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win8138@pusan.ac.kr

이제환,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jwleeh@pusan.ac.kr

Youn You-Ra, Lee Jae-Whoan

Dept. of Library, archive and Information studies, Pusan National Univ

## <초록>

이 연구에서는 전문도서관 사서의 입장을 통해 현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문제점을 알아보려 하였다. 구체적으로 1) 전문도서관 사서는 현 교과과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2) 전문도서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서의 능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3)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현장이 이러한 요구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반영해 나갈지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나의 연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작은 바람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학부과정 4년 동안 심화전공을 하였으며, 석사 2년 동안 다시 한번 전공을 깊이 있게 공부할 기회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내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하며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것은 그저 나 하나만의 고민은 아닌 듯 하다. 학부를 마치고 바로 도서관에 취업한 친구는 처음에 업무를 배우느라 고생을 했었다며, 대학 4년 공부의 허망함에 대해 늘어놓았었다. 그렇다면 내가 다녔던 학교에 국한된 문제인 것인가. 그렇게 치부해버리기에는 내 스승들의 열정적인 강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렇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도 한 학교의 교육이 미흡한 탓이라고 결론지어버릴 수도 없는 문제인 것이다.

대학의 존재이유가 단순히 직업인을 만들어 내는 것에 있지 않기에 이런 고민들은 다소 접잖지 못한 소인배의 고민으로 비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자. 학과에서 배출해 낸 인력이 그에 합당한 실력을 가지고 전문인으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학문의 존폐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이러하기에 연구를 통해 좀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교육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시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교육의 實現 場이라 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교육의 강점과 약점에 접근해 볼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교육과정의 핵심영역이라 볼 수 있는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도서관 사서들은 현 교과과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본다.

둘째, 도서관 사서들은 현장에 적합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어떤 교과과정을 요구하고 있는지 조사해본다.

셋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 사서들의 요구를 교과과정 속에 어떻게 반영해 낼 것인가를 논해 본다.

### 1.3. 연구 방법

연구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행해졌다. 연구의 대상은 전문도서관<sup>1)</sup>으로 정했다. 전문도서관은 첫째, 공익(公益)보다는 사익(私益)을 우선시 하는 기관이라는 점. 둘째, 규모가 다양하지만 소규모일 경우 사서의 역할이 도서관 업무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 셋째, 전문주제분야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타 관종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특징을 반영한 사서의 능력이 요구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문조사는 2003년 도서관통계에 수록된 기관과 8개 전문도서관협회<sup>2)</sup>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 중 직원들의 이메일이 공개되어있어 이메일 설문조사가 가능했던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기관에 근무하는 268명의 사서

들에게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32개 기관<sup>3)</sup>에서 57명으로부터 설문(회수율 : 약 22%)을 회수할 수 있었다.<sup>4)</sup>

설문은 Rehman(2000)이 제시한 교과과정 평가 기준인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sup>5)</sup> 세부항목은 각 대학별 교과과정현황을 분석하고, 미국의 ALA, ACRL, SLA에서 나온 교과목 가이드라인과 국내외에서 발표된 교과과정평가 자료 및 개론서(한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의 이해, 2004)를 참고하여 6가지학문영역(도서관경영, 자원개발, 기술봉사, 참고봉사, 정보검색, 정보기술)으로 분류하여 작성되었다.

설문형식은 각 세부 영역별로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연구자 자의에 의해 처음부터 결론이 결정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위험요소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설문지에 응답자의 의견을 기술할 수 있는 주관식 난을 별도로 마련해 두었다. 분석은 각 영역별 1순위비율을 가지고 하였다. 그러나 표본집단이 적고, 회수율이 낮아 설문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도서관은 직접적으로 명칭을 ‘전문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을 한정해서 쓰는 말이 아니다. 전문도서관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정보센터 및 정보원등으로 불리고 있는 기관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문도서관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한다.

2) 한국의학도서관협회(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과학기술정보관리협회(STIMA), 한국신학도서관협회(Korean Theological Library Association), 한국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회(KOSSIC), 건설정보관리협회의회(KCIMA), 지식경제정보협회의회, 전국은행정보자료실 실무자협회의회, 한국조서기자협회(Korea Press Researchers Association)

3) 의학과관련분야(6개관), 과학기술관련분야(11개관), 사회과학관련분야(1개관), 사기업관련분야(2개관), 국가기관관련분야(9개관), 금융정보관련분야(1개관), 통신관련분야(2개관)

4) <표 1> 설문대상자의 근무연수 및 역할

연수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년이상	무응답	역할	실무자	중간관리자	최고관리자	무응답
	8명	11명	14명	10명	5명	4명	5명		10명	17명	17명	3명

5) Rehman은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특히 Griffiths & King(1965)의 연구를 재인용하여 평가의 틀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행연구를 거치고 북미, 동아시아, 걸프만 지역을 대상으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 2.1. 현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

과연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은 현 교과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현장의 요구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해보았다.

<표 2> 현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불만족	14	24.6%	26.9%
불만족	9	15.8%	17.3%
보통	19	33.3%	36.5%
만족	10	17.5%	19.2%
매우 만족	0	0%	0%
무응답	5	8.8%	0%
합계	57	100%	100%

<표 2>에서 보여지 듯 응답자의 19.2%만이 현 교과과정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현 교과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44.2%가 대답하였다. 대부분의 사서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현 교과과정으로는 사서들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 실무에 적용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형식적인 개론수준에 불과, 실무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조직 능력, 서지도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름. 도대체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의문스러움 (A 전문도서관 중간관리자)

도서관학은 실용학문인데 지나치게 이론화 서구화 된 교과과정으로 현장과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음 (B 전문도서관 실무자)

### 2.2. 교과과정의 현장 반영도

현재의 교과과정이 현장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의 결과는 현장이 느끼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잘 보여 주고 있었다.

<표 3>에서 나타나듯 현 교과과정이 현장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대답한 이는 전체의 6%에 불과하였으며, 과반이 넘는 54%가 현 교육과정이 현장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

<표 3> 현 교과과정의 현장요구 반영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괴리	17	29.8%	34%
괴리	10	17.5%	20%
보통	20	35.1%	40%
반영	3	5.3%	6%
매우 반영	0	0%	0%
무응답	7	12.3%	0%
합계	57	100%	100%

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 결과는 현재 우리의 교육이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을 양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나타내 줌과 동시에 현장 사서들이 가지고 있는 현 교과과정에 대한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그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과과정이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전혀 읽어 내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였다. 현장에 있는 사서들도 계속 교육을 받지 않으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인데, 지금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며 걱정스러워 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추억속의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음 (C 전문도서관 중간관리자)

변화하는 IT기술 등과 같은 빠른 정보기술에 대처하기에는 현재의 교육과정이 너무 진부함. (D 전문도서관 최고관리자)

주변 환경의 빠른 변화 속도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E 전문도서관 실무자)

이처럼 전문도서관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서들은 지금 현재 강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과과정이 실제 행해지고 있는 업무와 많은 부분에서 괴리가 있음을 토로하고 있었다.

### 3. 전문도서관 사서에게 필요한 능력

그렇다면, 전문도서관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무엇이며, 어떤 능력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 우선 크게 지식·기술·태도로

나누어 평가해 보았다.

<표 4> 지식·기술·태도의 우선순위

능력별 순위	1순위비율
1순위 태도	70.2%
2순위 지식	19.3%
3순위 기술	10.5%

<표 4>에서 보여 지듯이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을 각각 19.3%, 10.5%로 답한 반면 70.2%가 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전문도서관 사서들이 기술과 지식에 대한 능력함양에 앞서 업무에 임하는 자세와 이용자에 대한 태도가 더 중점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좀 더 현장의 의견을 세분화하여 사서들은 교육을 통해 어떤 이론적인 기반(지식)을 세우고 실무 능력(기술)을 습득해야하며 업무 자세(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우선순위로 알아보도록 하자.

### 3.1. 업무 자세 : 태도(Attitude)

태도는 업무 자세와 관련된 능력을 말한다. 평가항목은 7가지로 구성하여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표 5> 태도(70.2%)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항목 순위	1순위 비율
1위 서비스에 대한 적극성 및 열린 마음자세	36.8%
2위 환경 변화에 따른 도서관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적응력 함양	26.3%
3위 사회봉사 정신 및 직업적 소명의식	15.8%
4위 이용자 요구를 파악하는 민감성	8.8%
5위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	5.3%
6위 지적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대한 마인드	3.5%
7위 이용자 정보에 대한 윤리의식	1.8%

1위는 '서비스에 대한 적극성 및 열린 마음 자세'로 36.8%의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에 대한 사서들의 태도 및 봉사정신에 대한 항목들이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제 정보서비스는 단순히 지식과 기술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자세와 마음가짐이 병행된 복합적 행위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다. 이에

서비스에 대한 자세의 중요성을 교육을 통해 어떻게 배양시켜 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도서관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적응력 함양'이 26.3%로 높게 나왔다. 이는 사서가 수동적인 태도로 사회를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현상을 읽어내고 적용해나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식과 기술·태도에 대한 전체적인 순위에서 태도가 우위를 차지한 만큼, 태도와 관련된 각 세부항목들에 대한 능력 배양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 3.2. 이론적 기반 : 지식(Knowledge)

학문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지식에 대한 평가는 6개 학문영역(도서관경영, 자원개발, 기술봉사, 정보기술, 참고봉사, 정보검색)으로 세분화하여 실시하였다. 각 6개 학문영역 아래에 5개의 세부평가항목을 제시하였으며 <표 6>은 설문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재정리한 것이다. 결과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정보학 관련분야 지식에 대한 높은 요구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들은 1.2위로 <정보검색> 29.4%, <정보기술> 26.3%를 각각 꼽고 있었다. 나머지 학문영역의 1순위비율이 10%안 밖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본다면 정보학 관련분야 지식이 현재 전문도서관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둘째, <정보검색>(29.8%)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데 비하여 <자원개발>(1.8%)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결과가 장서를 구비하는데 대한 지식습득의 불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전문도서관의 사서들에게는 장서관리에

대한 지식보다는 이용자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보다 더 절실한 요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셋째, <정보기술>에 대한 높은 요구는 전문도서관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임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넷째, 각 세부평가항목을 통해 전문도서관의 사서들이 이용자에게 대한 이해와 요구 파악 능력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정보검색>의 경우 28.1%가 '이용자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이해'를 1순위로 답했으며, <참고봉사>에서는 '참고면담에 대한 이해'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원개발>의 세부평가항목에서도 '이용자 요구에 적

합한 장서개발에 대한 이해'를 과반수이상인 77.2%가 중요하다. 라고 답했다. 이것은 전문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역할 중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보여준과 동시에 정보서비스가 단순한 자료제공의 과정이 아닌 이용자와의 대면을 통해 이용자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비한 지식 습득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길러져야 함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3.3. 실무 능력 : 기술(Skill)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게 되는 실무능력인 기술에 대한 평가항목 또한 6가지 학문분류를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각 5개 세부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했다. <표 7>는

<표 6> 지식(19.3%)의 우선순위

학문영역		세부평가항목			
학문영역별 순위	1순위비율	세부평가항목별 순위	1순위비율		
1위	정보검색	29.8%	1위	이용자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이해	28.1%
			2위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이해	26.3%
			3위	정보탐색과정에 대한 이해	24.6%
			4위	일반검색엔진 및 학술DB에 대한 이해	14.0%
			5위	정보검색시스템의 역사에 대한 이해	7.0%
2위	정보기술	26.3%	1위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59.6%
			2위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	28.1%
			3위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10.5%
			4위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1.8%
			5위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	0%
3위	도서관경영	14.0%	1위	도서관의 임무(mission), 역할(role), 목표(objectives)에 대한 이해	68.4%
			2위	개괄적인 경영 이론과 기법에 대한 이해	10.5%
			2위	도서관의 조직구조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10.5%
			4위	도서관 외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8.8%
			5위	도서관 예산 및 재무관리에 대한 이해	0%
4위	참고봉사	10.5%	1위	참고면담(서비스)에 대한 이해	43.9%
			2위	참고정보원에 대한 이해	33.3%
			3위	이용자교육(information literacy)에 대한 이해	19.3%
			3위	특정 주제분야에 대한 이해	19.3%
			5위	상호대차 및 문헌배달에 대한 이해	0%
5위	기술봉사	8.8%	1위	자료조직의 원리와 철학에 대한 이해	50.9%
			2위	분류, 목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28.1%
			3위	자료조직 과정에 대한 이해	17.5%
			4위	도서관 협동목록에 대한 이해	1.8%
			5위	색인, 초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0%
6위	자원개발	1.8%	1위	모기관의 목적과 이용자 요구에 적합한 장서개발에 대한 이해	77.2%
			2위	장서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이해	15.8%
			3위	서지도구에 대한 이해	3.5%
			4위	인쇄 및 출판, 유통 등의 출판 산업에 대한 이해	1.8%
			5위	장서 평가 및 폐기에 대한 이해	0%

설문 결과를 순위별로 구성한 것이다.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자.

첫째, <정보검색>이 23.6%로 그 중요성이 지식에서처럼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도서관의 경우 사서를 통한 정보검색이 보다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도서관 설립의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에 이 같은 기대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내기 위해 정보검색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정보검색기술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어지고 있었다.

둘째, 각 학문영역별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요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참고봉사>의 경우 지식에서는 중요도가 4위(10.5%)에 그쳤지만, 기술에서는 2위(2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봉사>의 경우에도 지식에 대한 요구보다는 기술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지식의 경우 각 학문영역의 요구도가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에 비해 기술에 대한 요구는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지식과 기술에서 모두 낮은 요구를 보였던 <자원개발>의 경우 지식에서는 1.8%로 타 영역과의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지만 기술의 경우 7.2%로 그 요구가 증대되어 차이가 좁아졌다.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즉 영역별 특징에 따라 이론보다는 실제 적용 가능한 실무를 중점적으로 지도해 주길 원하고 있

<표 7>기술(10.5%)의 우선순위

학문영역		세부평가항목			
학문영역별 순위	1순위비율	세부평가항목별 순위		1순위비율	
1위	정보검색	23.6%	1위	정보검색 전략 수립 능력	31.6%
			2위	각종 학술DB 활용 능력	24.6%
			3위	다양한 형태의 자료 활용 능력	21.1%
			4위	정보검색 실행 능력	19.3%
			5위	정보검색 결과에 대한 평가 능력(정확률, 재현율, 적합성)	3.5%
2위	참고봉사	21.8%	1위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45.6%
			2위	이용자 정보요구 분석 능력	42.1%
			3위	이용자 프로그램 설계 및 이용자 교육자료 개발 능력	5.3%
			4위	최신정보주지(SDD) 및 알람서비스 개발에 대한 기술	5.3%
			5위	이용자 만족도 측정 능력	1.8%
3위	정보기술	20.0%	1위	DB설계 및 관리 능력	36.8%
			1위	각종 소프트웨어 패키지 활용 능력	36.8%
			3위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능력	14.0%
			4위	하드웨어 관리 능력	8.8%
			5위	프로그래밍 기술	5.5%
4위	기술봉사	14.5%	1위	자료에 대한 주제 분석 능력	64.9%
			2위	자료조직 규칙 및 도구 활용 능력	21.1%
			3위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 자료에 대한 편목 능력	8.8%
			4위	편목시스템 활용 능력	3.5%
			5위	색인, 초록 작성 능력	0%
5위	도서관경영	12.7%	1위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능력	42.1%
			2위	도서관 이용과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통계분석 능력	38.6%
			3위	내적 커뮤니케이션(모기관 포함)능력	14.0%
			4위	도서관 홍보 능력	3.5%
			5위	외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1.8%
6위	자원개발	7.2%	1위	이용자 요구분석 능력	71.9%
			2위	자료 수집 및 수서 능력	14%
			3위	서지도구 활용 능력	7%
			4위	장서평가(&평가)에 대한 능력	5.3%
			5위	수서시스템에 대한 활용 능력	1.8%

으며 동시에 각 영역별로 현장실무기술이 비교적 고르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교과과정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

셋째, <정보기술>에 대한 요구도가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교과과정 속에 급변하는 정보기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해준다.

#### 4. 교과과정 개선 방안

설문을 통해 우리는 현 교과과정이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 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전문도서관에 진출할 예비사서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의 우선순위에 파악해 보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요구에 맞추어 적절한 교과과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설문결과분석을 바탕으로 전문도서관 사서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선 방안을 다섯 가지로 설계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사서로써 직업적 소명의식을 키울 수 있는 직업적 자세와 관련된 교과과정 개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특히 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적극성과 사회봉사에 대한 소명의식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하겠다.

둘째, <정보검색>과 같은 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교과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이용자요구분석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대하는 태도도 함께 배양시켜 줄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 각 영역별로 이론적 체계를 견고하게 하는 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현장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실무능력배양을 적절히 배합한 교과

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넷째,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한 교과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기술>과 관련된 지식 및 기술 습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비록 설문결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관식 문항을 통해 다수의 사서들이 제시하고 있었던 각 도서관별 전문주제분야 지식 습득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여건은 특성화된 교육을 꾸려 나갈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교직원 수의 한계와 예산 부족,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설강좌 수의 제한으로 인해 핵심코어교과목 개설과 더불어 각 관중별로 특성화된 교과목을 개설한다는 것은 당분간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현재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효과적으로 교과목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세 가지의 방안을 제시해 보려 한다.

첫째, 각 관중별로 습득해야 할 능력의 우선순위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그에 따라 수강해야 할 교과목들을 묶어놓은 교과목 안내도를 제작하고 지도해 나가는 것이다.<sup>6)</sup>

둘째, 대학원 과정을 통해 각자의 선택 진로에 맞게 관중별 필요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현재 학과 내에서 충당할 수 없는 능력의 경우 타학문과의 적극적인 연계수업을 통해 보충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나는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단과 현장의 거리를 다시 한번 실감 할 수 있었다. 설문

6) 한 예로 P대학에서는 매 학기 수강신청기간이 시작되면 학생들을 모아놓고 개설강좌설명을 하는 것과 더불어 각 분야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들을 제시해주고 보충해야할 타 학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조언을 해주는 시간을 가진다. 이것은 학과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더불어 한정된 교과목 내에서 학생들이 각각 희망하는 진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에 옹한 사서중 한 사람은 현장과 유리된 교육 제도를 보고 지금이라도 이러한 유형의 시도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얘기하며,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다. 그들은 강단과의 소통에 목말라 있었다.

미국의 경우 전문도서관협의회인 SLA(Special Library Association)을 중심으로 현장과 강단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장을 통해 훗날 현장에 진출하게 될 예비사서들이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어떻게 그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최선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작정 현장의 목소리만을 반영해서 교과과정을 구성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문의 이론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강단의 입장과 학문을 실무에 적용하려는 현장의 입장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학제간 교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제시하고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하겠다.

나는 아직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기에 솔직히 학문적 대의(大義)를 걱정하기 보다는 내게 닥친 현실이 더 절실하다. 글의 서두에서 말했듯이 당장의 취업자리 걱정으로 압담해하며, 내 앞에 놓여있는 척박한 우리 학문과 현장의 현실에 두려워한다. 이대로 계속해서 우리교육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시대의 흐름을 내다보지 못한다면 학문이 도태되고 중국에는 그 생존마저 위협받게 될 것 같아 내 앞의 미래가 두렵다.

그러나 현장사서와의 만남을 통해 나는 우리 교육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결책등을 알아볼 수 있었다. 가능성은 있다. 물론 우리의 교육 문제가 현장과의 연계를 통해 말끔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우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학문적 가치를 폄하하려는 무리들이 장애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씩

바꾸고 채워 가면 되지 않겠는가. 현장과의 소통은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의 학문과 교육을 채워나갈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과과정에 대한 논의가 한시적이고 고립되어진 것이 아닌 지속적이며 개방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나의 논의를 마친다.

### <참고문헌>

- 노영희. 2005.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1): 59-80.
- 노정란. 2003. 전문도서관 기반의 지식경영 방법론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344-363.
- 엄영애. 2003. 문헌정보학의 코어 교과목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33-49.
- 이제환. 2003. 전문직 이론을 통해 본 사서직의 전문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58-87.
- Griffiths, J.M. and King, D.W.. 1985. *New direction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Westport: Greenwood.
- Mahmood, K. 2002. "Competencies needed for future academic librarians in Pakistan", *Education for Information*, 20(1): 27-43.
- Rehman, S.U. 2003. "Information studies curriculum based on competency defini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3): 276-295.
- ALA. 1992. Standard for accreditation of master's program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http://www.ala.org/ala/accreditation/accredstandards/standards.htm> [cited 2005.8.8]
- SLA. 2003. Competencies for Special Librarians of the 21st Century. <http://www.sla.org/content/SLA/professional/meaning/competency.cfm> [cited 2005.8.9]